

海外研修를 마치고서(1)

研修期間 : 1994. 7.4~7.30(4주간)

研修機關 : 日本 聖마리아病院

研修者 : 강남성모병원약제과

수약사 한 옥 연

성 마리아병원은 일본 후쿠오카현, 구루메시에 위치한 1,400병상의 종합병원으로서 신생아 센터와 구급센터로서 이름이 있는 곳으로 후쿠오카뿐 아니라 그 외 여러 지역의 신생아 특히 미숙아들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어 국외에서 신생아 치료를 배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한다.

이사장의 뜻으로 명칭은 성 마리아병원으로 곳곳마다 마리아상과 액자등이 있고 별도 건물의 성당까지 있는데 신자인 직원은 20명도 채 안 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외국인 연수생들을 위한 숙소가 따로 있었는데 매우 깨끗하였고 그 곳에는 이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온 연수생들이 많았는데 한국에서 온 연수생도 있어 매우 반가웠으며 특히 함께간 간호사 그들과 우리만 오붓이지낼 수 있어 좋았으나 한편으로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적어 조금은 아쉬웠다.

연수는 도착 다음날 아침 조회식 인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여기서는 매일 아침 각과의 책임자들이 모여 서로의 업무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약제과는 약무실, 의약정보실, 조제약국, 소아약국, 주사제약국 등으로 나뉘어져 31명의 약사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병원규모에 비해 외래환자가 적어 약제과 식구는 적은편이었다.

일본에서는 근로기준법상 4주에 7일을 쉬게 되어있어 또 연차까지 합하여 일요일을 포함, 휴일이 연 90일 이상이나 되어 1일 평균 5명 이상의 약사가 쉬어 약국식구들을 모두 익히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조제약국에서는 1일 약 600매의 외래환자의 처방전이 fax를 통해 약국으로 오면 약국내에 수납직원(2명)이 바로 입력후 조제를 하는데 환자는 그동안 약가를 지불하고 약을 받게된다.

처방전에는 약 10회 정도까지 사용하여 전에 처방한 약 내용도 모두 알 수 있어 약이 변경되었으면 약사는 투약시 용법, 주의사항 등의 복약지도를 하고 있었다.

조제방법은 우리는 약의 종류가 많고 환자가 복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대부분 1회포장하여 투약하고 있으나 그곳에서는 거의 모든 약이 PTP포장으로 그대로 투약하는데 약의 종류가 많지 않아 그것이 가능했다.

아침 일찍은 대부분의 약사가 병동환자의 약을 조제하며 그 후에는 거의 모두 외래환자의 약을 조제하여 인력관리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었는데 정규, 추가의 구분없이 처방전이 오는 우리의 병동약국과는 꺾이나 대조적이었다.

재고관리는 모든 약의 포장상자에 바코드가 되어있어 매우 편리해 보였다.

소아약국에서는 수납하기전 처방전과 함께 차트가 약국으로 와 약사가 수납전 감사를 할 수 있어 수납후 정정하기 위해 환자가 다시 재수납을 하는 우리와는 달리 환자를 배려한 처사라 생각되었다.

의약정보실에서의 업무는 우리와 다름게 없었으며 오히려 우리가 질문건수나 교육프로그램이나 더 많은 업무를 하고 있어 매우 뿌듯하였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약품에 모두 제약회사의 마크나 약자등을 넣어 책을 찾아 쉽게 약품을 식별할 수 있어 치밀한 일본인들의 성격이 잘 반영된 것 같았다. 진료부서에서 의뢰한 약품 식별에 답하는 서식이 있는데 이것을 참고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것을 조금 수정할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약사가 주 1

회 복약지도를 하면 국가에서 복약지도료가 나오는데 100점에서부터 점차 증가되어 현재 600 점제도(₩ 6,000 / 月 / 환자 1人)였는데 이 병원에서는 당뇨, 뇌순환, 성형, 심장파트에 한해 복약지도를 하고 있어 특히 복약지도에 관해 배우고 싶다고 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배울 수 있었다. 여기서는 아직 외부약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요청하는 대로 모두 응해주어 한편으로는 편하기도 했지만 조금 섭섭한 감도 없지 않았다.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환자는 2주간 교육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앞으로의 치료계획과 주사법, 약물복용법, 식이요법 등의 모든것을 배우게 되며, 주 1회 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심리치료사 등 약 10명이 모여 치료계획과 문제점등을 토론하는데 환자 1명당 약 10분간이나 소요되었다. 그리고 주 1회 약사가 경구약 복용법과 주사법 등을 교육시키고 있었다.

그 외의 파트에서는 미리 차트를 통해 환자에 관해 파악한 후 회진때 함께 참여하여 의사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답도 하고 약물요법에 관해 조언도 하며 후에 따로 환자를 방문하여 약물의 기전, 복용법과 주의사항, 부작용등을 모두 차례대로 설명하여 환자들이 제대로 약을 복용할 수 있고 불편한 사항을 함께 의논할 수 있어 간호사나 환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

또 우연히 의료정보실을 알게되어 그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물으니 친절히 그곳에 있는 약사가 약국까지 와서 설명을 해주었다. 의료정보실은 우리의 전산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행하는 곳으로 이 곳에는 약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임상기사, 방사선기사, 컴퓨터 전공인 등이 근무를 한다고 한다. 각 파트의 직원이 있어 업무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직접 프로그램을 관리하니 매우 편리할 것이고 상호협조도 잘 되리라고 생각되어 부러웠다.

연수 중 운이 좋게 성마리아병원 학술대회와

WHO지정 신생아센터 關所式 및 심포지움이 열려 자진하여 한국에서 온 연수생 모두 참석하였는데 학술대회는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병원의 모든 부서(진료부서, 약제, 간호, 방사선과, 임상병리, 전산과 등)에서 논문을 발표하여 함께 토론하는 것이 무척이나 인상적이고 부러웠다.

일본인들의 습성인지는 몰라도 타부서와의 협조가 매우 잘되는 것 같아 이야기하니 복약상담을 한 후로 더욱 그렇게 되었다고 하기에 우리도 빨리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병원이나 길거리가 매우 깨끗하였고 언성높여 큰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또한 모든 사람들 청소하는 사람들까지도 자기일에 소신을 갖고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었으며 나는 어떠하니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기회에 업무에서는 복약지도 방법을 배워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한 파트부터라도 시작할 생각이며 업무외에서는 조그만 것에도 최선을 다해 끝까지 노력하는 것과 내가 싫더라도 상대방을 위해 참을 수 있는 배려심, 또 어디를 가나 청결한 모습, 질서의식...등 많은 것을 보고 배웠는데 과연 내가 이것을 얼마나 수용하여 나 자신이 변화되며 또 어떻게 과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지만 항상 일본에서의 연수를 생각하며 좀더 업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좋은 기회에 좀더 발전적인 많은 병원을 함께 견학할 수 있었으면 훨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을 것 같고 또 유난히도 더운 날씨덕에 시원한 기숙사에만 있어서 많은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도 못내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또 이런 기회가 많은 약사들에게 주어져 강남성모병원 약국은 신바람나는 직장이라고 여기며 모두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이렇게 많은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